



서울조합이사장에 남원호 사장 당선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을 이끌 제 24대 이사장에 남원호 비지아이 대표가 선출됐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지난 23대 이사장이었던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와 남원호 비지아이 대표가 후보로 등록했던 이번 이사장 선거에서 유효득표수 842표 가운데 남원호 사장이 464표를 얻어 378표를 얻은 조정석 사장보다 86표를 더 많이 받아 이사장에 선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허철중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고수곤 인쇄연구소 이사장 등 내빈과 9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2010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 결의안, 2010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결의안,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결의안, 총회 결의사항중 이사회 위임 결의안, 조합원 법정탈퇴 결의안, 임원선출(이사장, 이사 5명이상 50명 이내), 연합회 출석대의원 선출의 건이었고,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연합회 출석 대의원 선출의 건은 기존의 대의원들은 전원 사퇴한 것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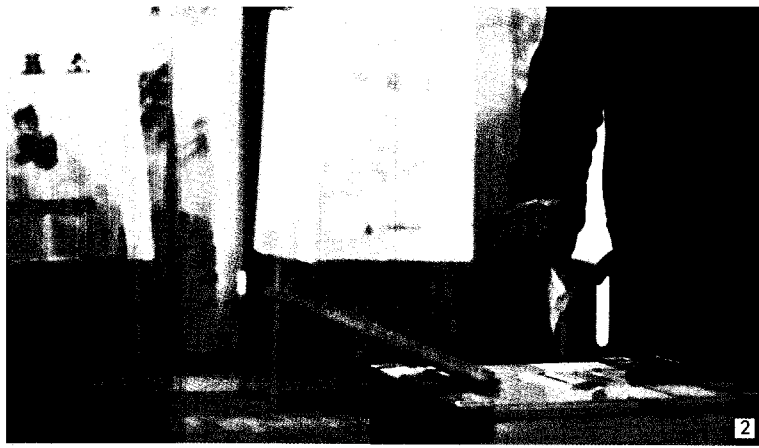
고 새로 선출하는 대의원은 신임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정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인쇄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B2B 쇼핑몰사업, 중구지역 인쇄마을 조성 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일년에 몇 군데 총회에 가보는데 오늘 서울인쇄조합 총회에와 보니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총회만큼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열기 또한 뜨거운 것 같다. 단체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2억까지 확대되도록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충원 인쇄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요즘 인쇄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해 인쇄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쇄인 또한 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남원호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선거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둘이 아닌 하나의 인쇄업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 서울인쇄조합 제24 이사장으로 선출된 남원호 이사장
2-4.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투표와 개표모습



〈수상자 명단〉

▲중앙회장상 : 성림디엔피 대표 고성채, 동안사 대표 김은대, 에스에스아이 대표 김한엽, 제이에쓰프린팅 대표 서선례, 마이컴프린팅 대표 이승용, (주)태영에스에프 대표이사 편문웅 ▲서울특별시상 : 상신문화인쇄사 대표 김영선, 반석기획인쇄 대표 반석규, 예지인쇄 대표 안광신, 순환정문사 대표 장세만, 청우 대표 황정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 대광전산품 대표 김원희, 대한인쇄사 대표 이장백, (주)상현원색 대표이사 원종성, 성광기획인쇄 대표 임인영, 서강에드넷(주) 대표이사 정순권
▲연합회장상 : 한국전산홍(주) 대표이사 김성규, 동국문화인쇄 대표 김옥동, 유광문화인쇄공사 대표 박영숙, 위프린팅코리아 대표 위성진 ▲이사장상 : 비전프린테크 대표 권영수, 금풍문화사 대표 김복환, 한국문화인쇄사 대표 김창현, 선운아이티에프(주) 대표이사 정용성, 범진문화인쇄 대표 조을기, 현대미술 대표 최호경 ▲전임간사장 공로패 : 비지아이 대표 남원호, 문창출판사 대표 이기섭, 대광전산품 대표 김원희 ▲감사패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차장 김도연, 농민신문사 차장 김성애 우후미 ▲모범중업원 이사장상 : (주)갑우문화사 주임 이숙일, 극동디앤씨(주) 차장 임정택, 길성문화인쇄사 대리 윤상민, 대화특수인쇄공사 차장 김향전, 명문인쇄공사 과장 대리 정은미, (주)미래엔 반장 신용욱, 범일인쇄 대리 임용진, (주)상지피앤아이 차장 오경환, 서진인쇄사 기장 김길중, 성신사 과장 최승완, 세종예술기획 부장 김형준, 승림문화사 과장 이종순, (주)카드랜드 팀장 최종현

남원호 당선자의 선거공약

약속 1. 인쇄표준단가 기준표를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 이사장이 삼성전자에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하면 하도급법에 의하여 삼성전자는 10일 안에 모든 인쇄등록업체와 단가협상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할 기준단가가 없습니다.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매년 물가 상승분으로 조정하고, 원자재 폭등 노무비 인상을 단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인쇄단가는 매년 안정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약속 2.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철폐하겠습니다.

인쇄산업은 공정상 협업하여야 합니다. 디자인에서 후가공까지 서로 협업을 하여야만 인쇄물이 탄생합니다. 인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스터, 오프셋,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고 누구나 인쇄물을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디자인에서 후가공까지 협업하여 공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기획사 인쇄사들과 협업을 하여야 합니다.

약속 3. 수요처의 기초단가 결정을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85%에 정확히 수주할 수 있도록 조합사업부에서 감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 전산용지 BOX당 2만2000원, 용지대 1만9700원 공박스인쇄비 2000원 등 순원가 2만1700원입니다. 이윤이 없습니다. 매년 담당공무원이 바뀌어 낙찰가를 기초단가로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5. 서울중앙회장상을 수여하고있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6. 전임간사장 공로패 시상 모습